

어우로움으로 가득 찬 작은섬,  
김포네스트

채지형 / 여행작가 [www.traveldesigner.co.kr](http://www.traveldesigner.co.kr)

지난 5월 OECD(경제협력개발기구)가 36개국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조사한 결과, 호주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선정되었다. 호주는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가장 살고 싶은 나라로도 뽑힌 바 있다. 도대체 무엇이 호주를 세계인의 로망으로 만든 것일까. 맑은 하늘과 하늘거리는 바람, 6월부터 11월까지 호주 곳곳을 수놓는 1만 2000여 종의 야생화를 보면 호주에 열광하는 이유를 알 것도 같다. 호주의 아름다움을 맛보기 위해 평화롭기로 유명한 서호주의 퍼스로 떠나 보자.



로트네스트 섬을 돌아볼 수 있는 경비행기

## 살기 좋은 도시, 퍼스

서호주의 중심지인 퍼스는 도시 전체가 공원 같다. 어디에서나 적당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맞을 수 있고 어느 곳에 눈을 뒤도 초록의 물결이 눈을 시원하게 해주는 도시다.

서호주 전체에 흐르는 여유로움은 어찌면 넓은 땅에서 나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. 호주 대륙이 남한의 100배가 될 정도로 넓은데, 그중에서도 서호주는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. 남한의 33배.

서호주에 사는 이는 겨우 190만 명. 그나마 이중 대부분인 150만명은 퍼스에 둥지를 틀고 있다.

퍼스에 가면 우선 퍼스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킹스파크로 향한다. 그곳에서는 퍼스 시내와 유유히 흐르는 강을 한품에 안을 수 있다. 마음이 바쁜 여행자들

도 킹스파크에 들어서면, 마치 마법에 빠진 것처럼 발걸음이 느려진다. 전망이 가장 좋은 곳은 전쟁기념탑 앞에는 현장학습을 나온 병아리들이 쉼 없이 재잘거린다.

킹스파크와 함께 퍼스여행에서 잊으면 안 될 곳이 1930년대 튜터 양식을 본떠 만들어 영국풍의 분위기가 풍기는 ‘런던코트(London Court)’와 ‘세상에서 가장 큰 악기’로 불리는 ‘스완벨 타워(Swan Bell Tower)’다.

퍼스는 도시 자체도 매력적이지만 주변에 상상 이상의 독특함을 품고 있는 여행지들이 펼쳐져 있어 더 빛을 받는다. 18세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낭만도시 프리맨틀, 석회암 기둥이 불쑥 불쑥 솟아있는 피너클스, 향긋한 와인천국 마가렛 리버. 이중에서도 휴식을 원하는 여행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여행지는 차가 다니지 않는 작은 섬 로트네스트다.

## 편안하게 쉬기 좋은 섬, 로트네스트

로트네스트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풍경이 잔잔한 커피향이 낮게 흐르는 해변을 배경





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되어 있는 로트네스트섬



으로 커피를 즐기는 엄마와 그 옆에서 세상 모르게 흥장난을 하고 있는 금발머리 꼬마가 만들어내는 편안함이다. 이보다 더 평화로울 수 있을까.

로트네스트 섬은 퍼스에서 1시간 30분 정도 페리를 타고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호주의 대표적인 휴양지로, 섬의 길이는

11km, 폭은 4.5km이다. 자전거로 5~6시간 정도면 일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섬이지만, 섬 전체가 자연과 더불어 놀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테마파크처럼 만들어져 있다.

두 손을 높이 들고 소리를 외칠만한 놀이기구는 없지만, 자전거 하이킹과 경비행기 투어, 잠수함 투어, 올리버 힐 기차 투어, 스노클링과 다이빙과 같은 해양 레포츠 등 자연 속에서 즐

길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갖춰져 있다. 로트네스트 섬의 자연환경이 이처럼 훌륭한 이유는 호주 정부의 보호정책 때문인데, 그들의 자연보호 정책은 곳곳에 서 있는

주의 표지판만 보더라도 느낄 수 있다. 섬 안에 돌아다니는 네 발 달린 교통수단은 관광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베이시커 버스(bayseeker)가 전부이다. 여행자들은 대부분 자전거 페달을 굴린다.

로트네스트 섬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중 하나는 '퀴카'라는 동물이다. 퀴카는 지구상에서 로트네스트 섬에만 사는 동물로, 로트네스트 이름이 만들어진 유래와 관계가 깊다. 17세기말 사람들이 이 섬에 발을 처음 디뎠을 때 커다란 쥐처럼 생긴 퀴카를 보고, 이 섬을 쥐의 둥지(rat's nest)라고 부르기 시작했다. 그래서 이 섬의 이름이 로트네스트가 된 것.

퀴카는 쥐처럼 생겼지만 설치류가 아니라 새끼를 배에 담고 다니는 유대류이다. 길거리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숲 속에 가서 잠시 기다리고 있으면 어디에선가 배에 새끼를 안은 귀여운 퀴카가 등장한다. 한참동안 그 퀴카들과 놀다보면 어느새 누가 퀴카고 사람인지 헷갈리기 시작한다.

### 자전거타고 살랑살랑 바람맞기

로트네스트를 사랑스럽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바다다. 눈처럼 하얀 백사장과 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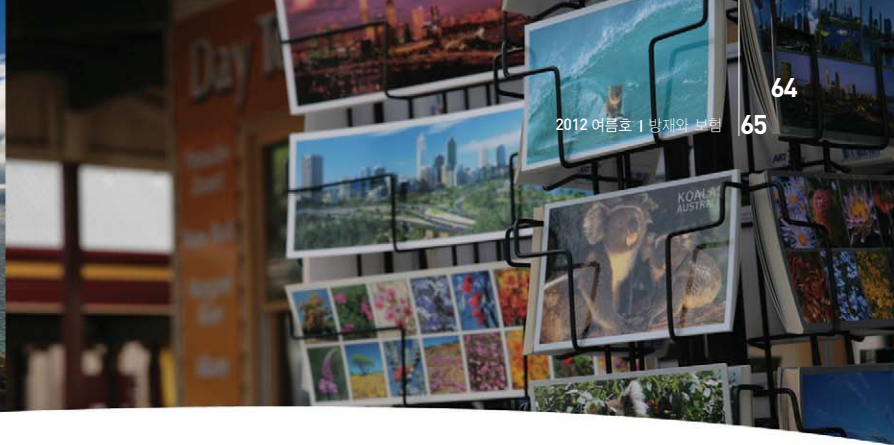
로트네스트섬에서 흥장난을 즐기고 있는 꼬마



로트네스트에만 사는 귀여운 동물, 퀴카



호주의 맑은 날씨



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 서호주

썩반짝 빛나는 바닷물은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황홀하다. 해양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라면 로트네스트섬을 천국이라 부를지도 모르겠다. 로트네스트 섬 주변에는 따뜻한 해류가 흐르고 있어 물 속 세상을 구경하기에도 좋다. 화려한 열대고기들과 형형색색의 산호초가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다. 그래서 서핑과 낚시, 스쿠버다이빙이나 스노클링은 이곳의 인기 액티비티다.

로트네스트 섬에서 빠트릴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경비행기. 하늘에서 내려다본 로트네스섬은 또 다른 감탄사를 자아내게 만든다. 가격도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한 편

으로 25달러에 하늘 위의 유람을 만끽할 수 있다.

그러나 역시 로트네스트 섬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자전거 타기다. 느리게 멋진 경치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. 자전거로 섬의 아름다운 곳들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다보면, 이것이 진정한 디톡스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.

로트네스트 섬에서는 매년 12월 첫째 주 섬 주변 1600m 코스에서 열리는 수영대회가 있는데, 수영을 좋아하는 이라면 이런 이벤트에 참여해보는 것도 섬을 더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이 될 것이다. ☺

### ■ ■ <여행정보>

#### \* 가는 법

- 직항편은 없다. 인천에서 홍콩에서 비행기를 갈아탄 후, 퍼스로 들어가면 된다.
- 로트네스트 섬은 퍼스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섬으로, 벨타워 근처에 있는 바락 스트리트 선착장에서 페리를 탈 수 있다.

<http://www.rottnestexpress.com.au>

#### \* 여행팁

-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국과 시차가 없다. 그러나 서머타임이 적용되는 4월부터는 한국보다 1시간 늦다.

#### \* 참고 사이트

- 서호주관광청 한국사무소, 02-6351-5156

<http://kr.westernaustralia.com>,

